

#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19세기말의 복식에 관한 연구

##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큐라>를 중심으로 -

부천대학, 서울정보기능대학, 용인송담대학 강사 박 은 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교수 이 재 정

### 、 목 차 、

- I. 서 론
- II. 영화 <드라큐라>의 작품 분석
- III. 영화 <드라큐라>의 의상 분석
- IV. 결 론

### <요 약>

영화 속에 표현된 복식형태는 영화의 주제와 흐름,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과 내면적 심리, 가치관, 태도 등을 암시하며, 심미적인 측면에서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19세기말의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복식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복식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영화적 효과와 더불어 영화예술에 나타난 복식의 시대적 표현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드라큐라> 의상의 복식사적 고증은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세기말 유럽사회로서, 격동적인 세기말적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복은 사실적인 복식사적 측면에서 재현되었으나, 여성복은 19세기말의 시대적인 고증에 입각한 전형적인 버슬 스타일(Bustle Style)과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해석되는 버슬과 아워글라스 스타일(Hourglass Style)이 혼합된 실루엣을 보여주어, 영화의상의 심미적인 가치와 더불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영화예술에 나타난 시대적인 복식의 표현성은 무엇보다 리얼리즘에 기초하여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문화 양상을 복식을 통해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화 속에 표현된 복식형태는 영화의 주제와 흐름,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적 심리, 가치관, 태도 등을 암시하며, 심미적인 측면에서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적 사조와 윤리, 도덕적 관념 등을 반영하며, 영화 속에 담겨진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복식의 외적인 형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며 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 시대를 특징 지워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sup>1)</sup>

역사적으로 19세기말은 복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당시 유럽사회는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고,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 등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보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복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자본주의는 인간소외의 정신적 혼돈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불안은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를 통해 표출되었다.

실증주의적 사고방식과 인류사회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에 대한 반항의식이 팽배하게 되었고, 동시에 문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현세 부정적인 허무주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쾌락주의적 특성을 보인 유미주의(Aestheticism)<sup>2)</sup>와, 문명의 몰락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반영하는 퇴폐주의(decadence)<sup>3)</sup>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sup>4)</sup>

따라서 19세기말에는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온다는 종말론과 더불어 세기말(Fin de Sie'cle)의 '데카당스'와 '世界苦', '기묘한 퇴폐 mood' 등은 그 당시의 상징주의 및 유미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아르누보(Art Nouveau)<sup>5)</sup>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아래 아르누보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복식 등 모든 조형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복식에 있어서는 1890년대를 기점으로 버슬스타일(Bustle Style)이 사라지면서 아르누보 양식의 아워글라스 스타일(Hourglass Style)과 S-커브

1) 손미희, 임영자 (1995) "1990년대 의상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P.33-34.

2) 유미주의 (Aestheticism)란 미적 형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탐미주의 혹은 심미주의를 일컫는다.

3) 19세기말 당대의 심미적 쾌락주의를 일컫는다. 데카당스는 몰락과 위기, 즉 한 문명의 해체에 직면해있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4) 정홍숙(1997) '성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38.

5) 아르누보란 아르 (Art)와 누보 (Nouveau, New)가 합쳐진 '새로운 예술'이란 뜻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을 통한 내적 표현을 중시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세계를 강조했다.

스타일(S-Curve Style)이 1910년경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격동기였던 19세기말의 불안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화 <드라큐라><sup>6)</sup>를 선정하여,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19세기말의 복식을 중심으로 당시 유럽사회의 격동적인 세기말(Fin de Siècle)적 사회상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복식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복식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영화적 효과와 더불어 영화예술에 나타난 복식의 시대적 표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1992년에 제작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감독의 영화 <드라큐라(Bram Stoker's Dracula)>를 중심으로 19세기말의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영화 <드라큐라>의 작품을 분석하고 둘째, 영화 <드라큐라>의 복식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후 셋째, 19세기말의 시대적 고증에 입각하여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복식형태를 주요 장면별로 살펴보고,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 <드라큐라>의 비디오필름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여 도식화하였다.<sup>7)</sup>

## II. 영화 <드라큐라>의 작품분석

### 1. 영화 <드라큐라>의 작품분석

#### 1) 감독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는 1939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출생으로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 제작자이다.

1961년 <Tonight for Sure>로 데뷔한 코폴라는 <You are A Big Boy Now>로 할리우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1970년 <패튼 대전차 군단 Patton>의 각본을 맡아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2년 마리오 푸조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대부>는 코폴라가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했던 작품으로, 2년 뒤 <대부 2>로 오스카상 6개 부문을 휩쓸었으며, 74년 한 미국인의 불안한 일상을 포착한 영화 <The Conversation>으로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6) 19세기 고딕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 <드라큐라>는 엄격하고 위선적인 도덕률이 지배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인간의 감추어진 성적 욕망과 선과 악의 투쟁,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다.

7) 그림 11-31, 표1,2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무대로 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장대한 스케일과 엄청난 제작비에 비해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음울하고 철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92년에 연출한 영화 <드라큐라(Bram Stoker's Dracula)>는 93년도 아카데미 의상상과 분장 상, 음향효과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제작 사상 최초로 컴퓨터로 편집을 했고, 무려 4천만 불의 거액이 투입됐으며, 미국 전지역에서 개봉 첫 주 만에 3천만 불을 넘는 경이적인 흥행기록을 세웠다.

19세기말을 그대로 재현한 의상, 그로테스크한 무대 세트와 고도의 분장 테크닉, 탁월한 특수 효과와 영화의 표현주의적 구도는 종전의 <드라큐라> 영화에 비해 높은 작품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코폴라 감독은 영화 <드라큐라>에서 역사적 시대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주인공 드라큐라의 갈등을 심도 있게 묘사하여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드라큐라>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며, 미국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 원작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 영화화된 170여 편의 <드라큐라> 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 2) 디자이너

디자이너 에이코 이시오카(Eiko Ishioka)는 1939년 일본 도쿄(Tokyo)에서 출생하여 도쿄 예술대학(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1963년 앨범 디자인으로 제 13회 일본 광고 예술가 클럽(Japan Advertising Artist Club : JAAC)에서 수상한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이며, 다음해인 1964년 도쿄 아트 디렉터 클럽(Tokyo Art Directors Club : Tokyo ADC)에서도 선정되었다. 1975년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부띠끄(boutiques)를 디자인했고, 제 21회 파르코(Parco) 광고를 위한 마이니치 디자인(Mainichi Design) 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파르코(Parco) T.V 필름과 포스터를 위한 도쿄 에이디씨 멤버스(Tokyo's ADC Members) 상을 수상했다.

1982년 이후 현재까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1988년 안소니 홉킨스(Anthony Hopkins) 주연의 <마담 버터플라이(M. Butterfly)>의 의상 디자인으로 토니(Tony) 상의 후보에 올랐으며,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의 앨범 디자인으로 그래미(Grammy) 상을 수상했다.

또한 1992년 코폴라(Coppola) 감독의 공포영화 <드라큐라(Bram Stoker's Dracula)>의 의상 디자인으로 제 65회 아카데미(Academy) 의상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 단에서 리차드 바그너(Richard Wagner) 작품의 <링 사이클(Ring Cycle)>에서 의상 디자인을 담당하여 그녀의 창조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2000년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주연의 공포영화 <더 셀(The Cell)>에서 환상적인 의상을 보여주었다.

영화 <드라큐라(Bram Stoker's Dracula)>와 <더 셀(The Cell)>에서 디자이너 이시오카는 어두운 공포의 세계를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감성에 어울리는 의상을 창조했

으며, 하나의 유일한 디자인을 위해 각각의 유일한 색상과 직물을 사용하여 의상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키 의상(Kabuki costumes)과 테크놀러지한 기계공상 과학 등 과거와 미래가 혼합된 영감의 근원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3) 줄거리 (story)

영화의 시작은 1462년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왕자 드라큐라(Dracula)가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드라큐라는 전 유럽이 터키의 침공을 받아 함락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참전하여 용감하게 적을 섬멸하고 조국 루마니아를 구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의 아내 엘리자벳(Elisabet)은 드라큐라가 전사했다는 터키군의 거짓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에 겨운 나머지 강에 뛰어들어 투신자살하고 만다.

아내의 시신을 꺼안고 비탄에 잠긴 드라큐라는 추기경으로부터 자살한 자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회의 계율을 듣고, 神과 교회를 저주하며,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 아내를 위해 복수하겠노라 맹세한다.

그로부터 4세기후인 1897년 런던으로 영화의 무대는 바뀐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 조나단 하커(Jonathan Harker)에게 영국의 땅을 사고 싶다는 트란실바니아의 영주 드라큐라의 편지가 전달되고, 조나단은 사랑하는 약혼녀 미나(Mina Murray)와의 결혼식을 보류하고 급히 트란실바니아로 떠난다. 자신의 성에 조나단을 감금한 드라큐라는 죽은 아내 엘리자벳의 분신인 미나를 찾아 런던으로 떠난다.

드라큐라가 런던에 나타나면서부터 배의 선원이 실종되고, 늑대가 나타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등 희귀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미나의 절친한 친구 루시(Lusy Westenra)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앓기 시작한다. 이윽고 잭(Jack)은 반 헬싱(Abraham Van Helsing)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루시의 목에 커다란 이빨 자국을 본 반 헬싱 교수는 루시가 드라큐라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드라큐라와 마주친 미나는 시간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을 확인하지만 이승에서는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사랑임을 예감한다. 이윽고, 반 헬싱 교수 일행이 드라큐라를 쫓아 트란실바니아로 향하고, 마침내 어둠의 세계에서 지친 드라큐라의 영혼은 사랑하는 미나의 칼날 아래 평온한 안식을 찾는다.

## 2. 영화 <드라큐라>의 복식 문화적 배경

코폴라의 영화 <드라큐라>의 공간적 배경은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와 영국 런던이며 시대적으로는 영화 도입부인 1462년, 15세기 중엽과 영화의 중심을 이루는 전, 후반부인 1897년, 즉 19세

기 말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19세기 말의 복식 문화적 배경만을 다루고자 하며, 크게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남성복

현대형 남성복의 기본은 이미 제 2제정 시대에 확립되어 있었다. 여성복의 모드가 파리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에 비해 남성복의 경우는 18세기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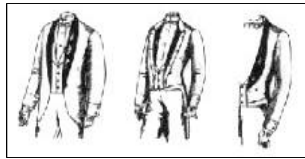
이 시대의 남성복식은 여전히 커다란 변화 없이 보수적인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특히 영국에서 각 개인의 체형에 맞게 양복을 제작할 수 있는 맞춤 기술의 발달이 시작된 때였다. 남성들은 저녁 시간의 예복(Evening Wear)으로 테일 코트를 착용하였다.

낮 시간의 일상적인 정장으로는 프록코트(Frock coat)<sup>9)</sup>를, 아침 시간을 위한 정장으로는 모닝코트(Morning coat)<sup>10)</sup>를 착용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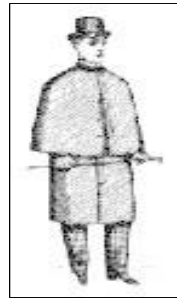
1880년대에 디너 자켓(Dinner Jacket)으로 소개된 턱시도 (Tuxedo)는 예복정장인 테일 코트와 일 반 수트 코트를 절충한 새로운 실용적인 스타일으로써 만찬용과 야회복 용도로 함께 사용되었다.



<그림 1>  
예복이 된 프록코트  
와 모닝코트, 1885년



<그림 2>  
버슬시대의 턱시도 (Tuxedo)  
1888년경



<그림 3>  
인버네스케이프  
(Inverness Cape),  
1888년



<그림 4>  
체스터필드 코트  
(Chesterfield Coat,  
왼쪽)와 톱 프록코  
트 (Top Frock Coat)  
1872년

8) 정흥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50.

9) 19세기에 사용된 남성복식의 용어는 20세기로 가면서 명칭이 바뀐다. 즉, 상의를 지칭했던 쥐스트코르 (justaucorps), 프락 아비에 (frac habile), 프락 (frac, frack)은 자켓 (jacket)으로 바뀐다.

10) 모닝코트는 프록코트를 대신하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외출복과 작업 복으로도 사용되었다. 옷자락 앞을 연미복과 비슷하게 둥글린 프록코트에서 발전하였다.

11)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470.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보편화된 양복 형태에 컷어웨이(Cutaway), 즉 모닝코트가 뒤이어 등장했고 1890년경에는 스모킹(담배 피울 때 입는 실내용 상의·역주)이 등장했다.<sup>12)</sup> 모든 상의와 맞출 수 있는 바지는 이 시기가 되면 전적으로 팬탈롱, 하의를 지칭했던 쿨로트(culotte), 팬탈롱(pantalon), 데가제(de'gage') 등의 남성 복식의 용어는 20세기로 가면서 트라우저스(trousers)나 팬츠(pants), 슬랙스(slacks)로 바뀐다. 즉 험렁한 긴 바지가 되었다. 바지의 기본적 구성은 현재에 이르도록 변화가 없고, 가랑이의 폭이 약간 좁아진다던가 끝에 커프스가 붙는다던가 하는 변화에 그쳤다.<sup>13)</sup>

이 시기에는 체크무늬와 줄무늬 바지가 매우 유행하였고, 무릎을 덮는 니커즈(Knickers=Knickerbockers)는 골프나 사냥, 도보여행 등 운동을 많이 할 때 착용되었다.

셔츠(Shirt)는 앞판의 가슴받이(Bosom piece)를 뺏뺏하게 풀을 먹여서 사용하였는데, 젖혀진 스텐 칼라가 가장 많이 유행하였고, 윙이나 하이스탠딩 칼라(High-Standing Collar)도 자주 사용되었다.

예복으로 착용된 조끼(gilet)는 현재의 형태와 거의 비슷했지만 작은 칼라가 달린 것이 차이점으로, 주로 상의나 바지와동일한 원단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통일미를 중시하였다.

1870년대부터 출현한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는 오버 코트(Over coat)의 일종으로 일명 ‘셜록 홈즈(Sherlock Holmes)의 코트’라고 불렸다. 케이프에 소매가 달린 코트로서 벨트를 땀으며, 특히 여행이나 날씨가 나쁠 때에 착용되었다.

또한 남성복의 겉옷으로 모피를 댄 체스터필드 코트(Chesterfield Coat)와 톱코트의 일종인 톱 프록코트(Top Frock Coat)가 착용되었다.

머리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형태였으며, 구렛나루와 콧수염, 턱수염을 많이 길렀고, 모자는 춤이 높은 톱 햇(Top Hat)과 더비(Derby) 모자, 부드러운 펠트(Felt) 모자 등이 착용되었다.

또한 1870년대 무렵에는 오늘날의 넥타이 형태로 변화된 타이(Four-in-hand tie)가 등장하였고 1890년경에는 스카프를 맨 듯한 아스코트 타이(Ascot-tie)와 나비 넥타이 등이 착용되었다.

이 시기의 남성복에는 갈색, 브라운, 검정, 회색, 감색 등의 짙고 어두운 색상이 주류를 이루어 여전히 색상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을 띄었다.

## 2) 여성복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에 표현된 19세기말의 의상 스타일인 버슬 스타일과 아워글라스 스타일을 중심으로 여성복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9세기 말, 남성패션의 중심지가 런던이었다면 여성패션의 중심지는 프랑스 파리였다.

영국에서 성장한 자본주의 사회의 분위기와 자본가 계급의 부인들은 사회운동과 함께 거추장스러운 의상을 간단한 형태로 바꾸는 복장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는 프랑스에도 옮겨와서 단순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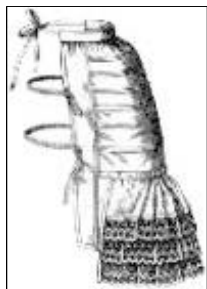
12) 막스 폰 빈 (2000) ‘패션의 역사-18세기 로코코 시대부터 1914년까지’, 서울: 한길아트 P.375.

13) 정홍숙, 전게서 P.351.

14) 김미진 (1999)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버슬 스타일을 중심으로”, 이대 석논 P.36.



**<그림 5> 힙(hip)이  
강조된 버슬 스타일  
(Bustle Style),  
1880년대**



**<그림 6>  
버슬, 1880년대**



**<그림 7>  
모래시계(Hourglass)  
형태의 corset,  
1886년**



**<그림 8>  
콜셋(corset)으로  
강조된 개미허리**

부르주아 사회의 장식적인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은 1870년대를 기점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장식도 점차 간소화되어 검소하고 기능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했다.

즉, 양옆으로 부풀려진 형태의 크리놀린 스타일은 뒷부분으로 부풀려진 폴로네즈 스타일(Polonaise Style)을 거쳐 버슬 스타일 (Bustle Style)로 변화하게 되었다.

버슬 스타일은 의복의 뒷부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 또한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의복의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미적인 만족보다는 타인에게 보여 지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이 버슬 스타일은 바디스(bodice)로 상체를 타이트하게 꼭 조여서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고, 스커트를 거의 직선으로 좁혀 엉덩이 부분을 과장되게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섹슈얼리티를 상징적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빅토리아 시대인 들의 억압된 관능 성을 의상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말에는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하여 맨 아래 늑골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이 유행하였고 여성의 이상적인 허리가 14-15인치로 여겨지던 ‘개미허리(wasp-waist)’의 절정기였다. 가장 타이트한 콜셋을 입었던 이들은 고급 창부(courtesan)였으나, 한편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곱게 보호받고 자란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갖기도 했다.<sup>16)</sup>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버슬은 많은 꽃 장식, 러플, 프릴 등으로 전체 실루엣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도한 러플과 복잡한 디자인은 당시 조형예술분야에 만연했던 복잡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절충주의(Eclecticism) 양식의 영향으로 본다.<sup>17)</sup> 버슬 스타일의 과도한 레이스와 러플, 리본

15) Ibid, P.50.

16) 빅토리아 여왕시대는 콜셋의 전성기로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대변이라도 하듯 타이트한 콜셋으로 인한 고통이 여성들의 정신과 육체를 한없이 구속하던 시대였다. ‘빅토리아 콜셋 (Victorian Corset)’이란 용어는 빅토리아 여왕시대 (1837-1901)에 유행했던 콜셋류를 말한다. /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Fetishism)’, 서울: 경춘사 P.83-86.

17) 정홍숙 (1989) ‘근대 복식문화사-1800-1930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131.



등의 복잡한 디자인은 아르 누보 스타일에 와서는 외부의 물리적 현상보다는 내적 표현을 중시하는, 직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을 통한 새로운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즉, 아르 누보의 곡선은 자연주의와 맞물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

아르누보의 주된 장식적 특징, 즉 흘러내리고 미끄러지며 굽이쳐 다시 튀어 오르는 선에 내재하는 미적 가치는 ‘리드미컬한 무언의 음악’으로써 운동과 생명의 관념을 전한다. 또한 아르 누보 장식은 불균형에 의한 조화, 좌우 비대칭이 최대한 강조되어 전체구조가 아니면 형태세부에, 거의 모든 단계에 나타난다. ‘좌우대칭 장식은 새 예술의 모든 선이 흘러내리고 굽이치는 데는 적절치 못하다’<sup>18)</sup>고 한 것처럼 이 형태의 불균형(비대칭)은 생명과 운동을 암시하는 격동적 요소로서 불가분의 표현이 되었다.<sup>19)</sup>

1865년경부터 1890년경까지 베클 시대의 복식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다. 사실상, 엠파이어 스타일이 사라지고 낭만주의적 색채가 가미되기 시작한 1817년경부터 베클 시대가 끝나는 1889년까지 여성복식의 실루엣을 확연히 구별해주는 것은 바로 스커트의 모양이었다.<sup>20)</sup>

1890년부터 스커트는 베클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장식도 없어지고 단순해지는 반면, 관심의 초점이 상체의 어깨와 소매로 옮겨지면서 어깨를 장식하고 소매를 여러 형태로 부풀려 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심한 곡선을 이룬 큰소매와 가는허리, 플레어로 퍼진 스커트<sup>21)</sup>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아워글라스 실루엣이 창출되었다.<sup>22)</sup>

스커트의 모양은 19세기말의 베클 스타일(Bustle Style)의 h 실루엣에서 20세기 초 아워 글라스 스타일(Hourglass Style)의 A 실루엣, S-커브 실루엣(S-Curve Silhouette)의 S 실루엣으로 전환되었다.

베클 시대의 여성 코트는 긴 길이의 르덴 코트를 비롯하여, 짧은 망토(manteau)식 코트와 1/2, 3/4길이의 다양한 디자인의 코트를 착용했으며, 아워 글라스 시대에 와서는 프린세스 라인(Princess-line)의 코트와 모피로 된 짧은 케이프(Cape) 등을 착용했다.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1880년대 초에는 뒤로 간단히 올린 스타일이 유행했으며, 1880년대 말에는 머리를 정수리에 매듭으로 땀아 묶어서 올려붙이는 스타일 (Psyche-Knot)이 흔히 사용되었으며<sup>23)</sup>, 아워 글라스 시대로 오면



<그림 9> 베클스타일이 묘사된 회화 <그랑드자트 섬의 여름날 일요일의 오후>, 1886년



<그림 10> 베클 스타일에서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로 변해 가는 과도기, 1890년

18) Martin Battersby (1969) 'Art Nouveau Style', London: Hamlyn Publishing Group P.12.

19) 장순찬 (1985) "Art Nouveau Fashion", 이대 석논 P.27.

20) 김현숙, 전개서 P.474.

21) 고어드 (gored) 방법을 고안하여 스커트를 허리에 꼭 맞게 하면서 스커트 단 쪽이 플레어 지며 퍼지도록 구성하였다.

22) Ibid, P.344.

머리 위에 올려붙이는 지난 시대의 스타일에서 차츰 부드러운 깃슨 걸(Gibson girl) 스타일<sup>24)</sup>이 출현하게 되었다. 1880년대의 꽃이 달린 높은 중산모와 작은 보네들은 1890년대 초에 들어서는 납작해진 춤과 넓은 테의 모자에 밀리게 되었다. 작은 모자는 애프터 눈 웨어와 이브닝 웨어를 입을 때 인기가 있었다.<sup>25)</sup>

이 시기의 여성복은 다양한 범위의 색상이 사용되어졌는데, 여름에는 밝고 열은 흰색과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으며, 겨울에는 자홍색(magenta)처럼 보다 강하고 진한 색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 III. 영화 <드라큐라>의 의상 분석

영화 <드라큐라>는 19세기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당시 고딕문학에 기초를 둔 흡혈귀의 전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시대물인 동시에 공포장르에 속한다. 따라서 영화 속에 나타난 복식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즉, 영화의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19세기말의 복식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복식형태와 디자이너 시각에서 영화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복식형태로 크게 구분되어 영화에서 의상이 갖는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복식의 시대적인 표현성만을 다루고자 한다.

#### 1. 장면별 의상 분석

본 장에서는 영화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영화 속에 표현된 19세기 말의 복식을 살펴보고 영화의상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1) 제 1장면 : 드라큐라 성을 방문하는 조나단

<그림 11>은 드라큐라 성으로 떠나는 조나단과 작별하는 장면으로 미나는 힙 부분을 드레이프로 장식한 19세기말의 후기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전형적인 애프터 눈 드레스(Afternoon Dress)를 착용하고 있으며, 조나단 역시 19세기말에 유행했던 체크무늬의 프록코트(Frock coat)와 판탈롱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12>는 드라큐라 성에 도착한 조나단의 모습으로 더블 브



<그림 11> Bustle Style의 afternoon dress를 착용하고 있는 미나

23) 김현숙, 전게서 P.487.

24) 부드러운 깃슨 걸 스타일은 1900년대에 가서 더욱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 Ibid, P.502.

25) 블랑쉬 페인 (1988) 'History of Costume-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서울: 까치 글방 P.616-617.

레스티드 오버 코트(Double Breasted Over Coat)와 두꺼운 펠트(Felt)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짙은 다크 브라운의 의상은 주위의 음산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 어둡고 둔탁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공포감과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13>은 드라큐라 성에 갇힌 조나단의 모습으로 박스형태의 색 코트(Sack Coat)와 스탠딩 칼라의 셔츠와 작은 칼라가 달린 조끼(gilet)를 착용하고 있다.

제 1장면에서는 조나단이 흡혈귀로 변신한 드라큐라 백작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모습으로 19세기말의 전형적인 남성복을 재현하고 있다. 당시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었던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등의 보수적인 색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Double Breasted Over Coat를 착용하고 있는 조나단



<그림 13> Sack Coat와 작은 칼라가 달린 gilet을 착용하고 있는 조나단

## 2) 제 2장면 : 드라큐라의 존재를 모르는 미나와 루시

<그림 14>는 루시의 저택에 머물고 있는 미나와 루시의 모습으로, 미나는 힙 부분을 강조한 후기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애프터눈 드레스(Afternoon Dress)를 착용하고 있다. 미나의 머리 스타일은 당시에 유행했던 사이키 노트(Psyche-Knot) 스타일로써 머리를 정수리에 매듭으로 땋아 묶어서 정갈하게 올려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준다.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타이트한 바디스(Bodice)는 목에서부터 단추가 달려 있어 19세기 말의 유행복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 14> 후기 Bustle Style의 Dress를 착용하고 있는 미나와 루시



<그림 15> 파티 장소에서의 루시와 미나

반면, 루시는 러플과 꽃, 레이스, 리본 등의 장식이 화려한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어 루시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풀어헤친 금발머리는 루시의 성

적 자유와 방종을 연상시킨다. 어깨를 훤히 노출시키고,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를 레이스로 장식한 루시의 의상은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로 목 위까지 감싼 미나의 의상에 비해서 한층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15>는 루시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파티 장면으로, 미나는 백색의 브로케이드(Brocade)로 장식된 스퀘어 네크라인 (Square Neck-Line)의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한 반면, 루시는 또한 어깨와 가슴을 많이 노출시킨 화려한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스커트의 형태는 ‘Tea Tray’를 올려놓을 정도로 힙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과장된 버슬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매는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에서 나타나는 풍성하게 부풀려진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한껏 곡선미를 살려주고 있다. <그림 16>

<그림 17>은 루시의 파티에 등장하는 잭과 모리스의 모습으로, 잭은 19세기 후반의 예복인 검정 색의 프록코트 (Frock coat)에 폭넓은 보우 타이(Bow-Tie)를 착용하고 있으며, 프록코트는 그 당시 유행했던 형태로 앞자락이 비스듬하게 재단된 형태를 띠고 있다. 밝은 감색 프록코트(Frock coat)와 화려한 무늬의 조끼 (gilet)를 걸친 모리스는 쾌활한 성향을 지닌 멋쟁이 귀족을 묘사하고 있다. 좁은 끈으로 된 스트링 타이(String-Tie)를 매고 있으며, 프록코트는 역시 앞자락을 비스듬하게 재단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16> 어깨가 많이  
노출된 Bustle Style의  
Dress를 착용하고 있는 루시**



**<그림 17> 앞자락이  
비스듬하게 재단된 Frock  
Coat를 착용하고 있는  
잭(왼쪽)과 모리스(오른쪽)**

반면 아더는 앞자락의 헴 라인(hem-line)을 일자형으로 처리한 코발트블루의 웨이스트 코트 (Waist Coat)에 좁은 보우 타이(Bow-Tie)를 착용하여 세련된 젊은 귀족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18>

<그림 19>는 정원에 있는 미나와 루시의 모습으로, 미나는 소매가 한층 부풀려져 강조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의 아워 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에 근접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나, 스커트의 힙 부분은 여전히 러플로 강조된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로써 버슬에서 아워 글라스 스타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림 18> Waist coat에  
좁은 Bow Tie를  
착용하고 있는 아더**



**<그림 19> Leg of Mutton  
Sleeve의 Dress를 착용하고  
있는 미나와 루시**

비 내리는 정원에서 키스를 나누는 미나와 루시의 비에 젖은 흐트러진 모습은 두 처녀 모두 억압된 성적 구속에 대한 반발 심리 및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갈망과 동성애(Homo-Sexual)적 표현으로 보여 진다. <그림 20>

이는 19세기말 빅토리안(Victorian)의 감추어진 성적 에로티시즘의 표출이며, 세기말(Fin de Sie'cle)의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0> 동성애 적인  
일면으로 보여지는 루시와  
미나의 키스 장면**

제 2장면에서는 아직 드라큐라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미나와 루시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나와 루시의 복식형태는 버슬 스타일과 아워글라스 스타일이 혼합된 실루엣을 보여주며, 주로 백색과 라이트 블루의 깨끗하고 밝은 색상이 주류를 이루어 아직까지는 드라큐라에게 짓밟히지 않은 루시의 순결함과 두 처녀 모두 밝은 빛의 세계에 속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 3) 제 3장면 : 재회하는 미나와 드라큐라

<그림 21, 22>는 런던의 거리에서 재회하는 미나와 드라큐라의 모습으로, 드라큐라는 19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신사복장을 하고 있다. 끝이 접혀진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셔츠(Shirt)에 스카프를 맨 듯한 아스코트 타이(Ascot-tie), 라펠이 넓은 프록코트(Frock coat)와 높은 실크 햇(Silk Hat), 화려한 장식의 넥타이핀, 테가 가는 안경 등을 착용하여 당시 우아한 귀족의 멋을 한껏 살려주고 있다.



**<그림 21> 라펠이 넓은  
Frock Coat와 Silk Hat을  
착용하고 있는 드라큐라**



**<그림 22> 스탠딩 칼라에  
Puff Sleeve의 Bustle Style  
의 Dress를 착용한 미나**

미나는 당시의 유행인 타이트한 바디스(Bodice)와 스탠딩 칼라, 퍼프 슬리브(Puff-Sleeve)에 힙 부분을 겹겹의 러플로 강조한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머리는 사이키 넷(Psyche-Knot) 스타일로 묶어 뒤로 올리고 작은 캣(Cat)을 쓰고 있어 여인의 정숙함과 단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나와 드라큐라의 슬프고 낭만적인 재회 장면에서 드라큐라는 바디스(Bodice)를 화려한 황금빛의 자수로 장식한 하이 스탠딩 칼라(High-Standing Collar)의 검정 색 오버코트를 착용하고 있어 한층 귀족적이고 품위 있는 드라큐라의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엿보인다. 미나 역시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이고 힙 부분이 우아하게 드레이프된 버슬 스타일의 붉은 야회복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어 사랑에 빠진 미나의 내적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길게 풀어헤친 머리 스타일은 4세기전의 엘리자베스를 암시해 주고 있어 극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림 23>



<그림 23> 붉은 색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 드레스를 착용한 미나

또한 미나를 기다리는 드라큐라는 라펠이 넓은 프록코트(Frock Coat)와 나비 모양의 넓은 보우 타이(Bow Tie)를 착용하고 있는데, 백색이 주는 귀족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빠진 드라큐라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제 3장면에서는 400여 년 만에 재회하는 드라큐라와 미나의 모습으로 19세기말의 우아한 버슬 스타일의 복식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화려한 백색과 붉은 색, 황금색 등으로 드라큐라와 미나 모두 극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4) 제 4장면 : 드라큐라의 제물이 된 루시

<그림 24>는 흡혈귀가 된 루시의 모습으로 웨딩드레스이자장례예복인 흰색 드레스는 풍성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로 소매가 크게 강조되었고, 비대칭의 곡선미를 살린 화려한 모자는 장식적인 아르누보(Art Nouveau)의 조형미가 돋보인다.



<그림 24> 소매가 강조된 Leg of Mutton Sleeve의 Tunic Style의 Dress를 착용하고 있다.

스커트는 풍성하게 강조된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의 형태위에 튜닉 스타일(Tunic Style)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넓고 과장된 두 겹의 러플 칼라와 뒤에 길게 늘어 트린 트레일(Trail)은 매우 장식적이며 화려한 느낌을 주어 흡혈귀로 탄생한 어둠의 여왕 루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로 해석된다.

병을 앓고 있는 루시를 방문한 잭은 전형적인 예복인 검정 색의 프록코트(Frock Coat)와 폭이 넓은 보우 타이(Bow Tie)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루시의 약혼자 아더는 밝은 감색의 더블 브레스트드 웨이스트 자켓(Double Breasted Waisted Jacket)을 착용하고 있다. 모리스는 화려한 무늬의 조끼

(gilet)와 감색의 프록코트(Frock Coat)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25>

제 4장면에서는 드라큐라의 제물이 된 루시가 흡혈귀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남성복은 시대적 고증에 입각한 버슬스타일 시대의 복식을 재현하고 있는 반면, 루시의 의상은 아르누보 양식의 아워 글라스 스타일과 튜닉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Double Breasted Waisted Jacket)를 착용하고 있는 아더 (가운데)와 화려한 무늬의 gilet을 착용하고 있는 모리스 (왼쪽)

##### 5) 제 5장면 : 결혼식을 올리는 미나와 조나단



<그림26> 조나단과 미나의 결혼식 장면

<그림 26>은 조나단과 결혼식을 올리는 미나의 모습으로 결혼 예복임에도 미나는 짙은 회색의 어두운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어 행복한 결혼식이 아님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월계수가 꽃힌 토크(toque) 형태의 모자는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27>은 결혼식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조나단과 미나의 모습으로, 조나단은 어두운 다크 그레이의 프록코트와 스탠딩 칼라 (Standing Collar)로 깃이 세워져 있는 셔츠를 착용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비슷한 넥타이인 포 인 핸드 타이 (Four in Hand Tie)를 매고 있는 모습이다. 미나의 의상 역시 짙은 회색과 검정 색의 어두운 색상의 드레스로써 루시를 잃은 슬픔과 조나단과의 결혼, 드라큐라에 대한 갈망으로 혼란스러운 그녀의 내적 침체를 표현하고 있다. 에이프런 형태의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는 스탠딩 칼라에 퍼프슬리브(Puff-Sleeve)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27> 짙은 회색의 Bustle Style의 Dress를 착용한 미나와 체크무늬의 Frock Coat를 착용하고 있는 조나단



<그림 28> Chesterfield Coat와 Silk Hat을 착용하고 있는 드라큐라

<그림 28>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미나와 조나단을 응시하는 드라큐라의 모습으로, 어둡고 음산한 거리 한복판에 등장한 드라큐라는 커프스에 털을 댄 검정 색 체스터필드(chesterfield) 코트와 실크 햇(Silk Hat)을 착용하고 있는데, 검정 색이 상징하는 어둠과 슬픔, 비탄과 절망의 무거운 그림자는 사랑을 잃은 참담한 심정의 드라큐라의 내면을 섬세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제 5장면에서는 조나단과의 결혼으로 인해 혼란스런 심경에 빠진 미나와 비탄에 잠긴 드라큐라를 어두운 다크 그레이와 검정 색의 의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나의 의상은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와 이국적인 토크(toque)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여 영화의 공간적 이동을 표현하고 있다.

#### 6) 제 6장면 : 드라큐라에 대항하는 조나단 일행



<그림 29> Inverness Cape를 착용한 잭과 Apron형태의 Bustle Style의 Dress를 착용한 미나

<그림 29>는 미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잭의 모습으로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와 더비(Derby)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30, 31>은 드라큐라를 쫓는 조나단 일행의 모습으로, 아더는 안쪽에 털을 댄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와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Double Breasted Jacket)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30>

반면 잭은 네크라인과 커프스, 안감에 털을 댄 체스터필드 코트(Chesterfield Coat)와 루마니아를 상징하는 코사크 캣(Cosack Cat)을 착용하고 있어 영화의 공간적인 배경이 루마니아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31>

제 6장면에서는 드라큐라를 쫓는 조나단 일행으로 19세기말의 전형적인 남성복을 보여주고 있으나, 런던에서 루마니아로의 공간적 이동을 두꺼운 털 코트와 코사크 캣(Cosack Cat)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0> Inverness Cape와 Double Breasted Jacket을 착용한 아더



<그림 31> Chesterfield Coat와 Cosack Cat을 착용한 잭

## 2. 남성복과 여성복의 의상분석

본 장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남성복과 여성복에 나타난 복식의 시대적 표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1) 남성복

&lt;표 1&gt; 남성복의 의상분석

| 항목<br>그림                                                                           | 종 류               | 색 상              | 특 징                                             |
|------------------------------------------------------------------------------------|-------------------|------------------|-------------------------------------------------|
|    | 프록코트+ 판탈롱+ 조끼     | 다크 그레이           | 아스코트(Ascot-tie)타이와 실크 햇의 색상이 조화를 이룸             |
|    | 오버코트 + 판탈롱        | 검정색+ 황금색         | 하이스탠딩칼라와 바디스를 황금 빛 자수로 장식                       |
|    | 프록코트+ 판탈롱+ 조끼     | 흰 색+ 황금색         | 라펠이 넓은 프록코트와 보우 타이(Bow Tie)                     |
|   | 체스터필드 코트 + 판탈롱    | 검정색              | 커프스에 털을 댄 체스터필드(Chesterfield) 코트와 실크 햇          |
|  | 프록코트+판탈롱+조끼       | 다크 그레이           | 스탠딩칼라의 셔츠에 얇은 타이, 체크 무늬의 프록코트                   |
|  | 색코트+ 판탈롱+ 조끼      | 라이트 브라운 + 다크 브라운 | 스탠딩 칼라의 셔츠에 작은 칼라가 달린 조끼 (gilet)와 박스형태인 색 코트    |
|  | 오버코트 + 판탈롱        | 다크 브라운           | 하이폴링 칼라, 더블브레스티 오버코트                            |
|  | 체스터필드 코트 +판탈롱+ 조끼 | 검정색              | 스탠딩칼라의 셔츠, 칼라와 커프스에 털을 댄 체스터필드 (Chesterfield)코트 |

영화 속에 표현된 버슬시대의 남성복은 상의(Frac, Frock)와 조끼 (gilet), 바지(pantalon)가 한 벌이다.

상의로 프록코트(Frock coat)가 가장 다양하게 착용되었고 힘을 덮는 박스형태의 색(Sack coat) 코트, 무릎까지 내려오는 더블 브레스티드와 하이스탠딩칼라의 오버코트, 칼라와 커프스에 털

을 댄 체스터필드 코트(Chesterfield Coat)와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가는 끈의 스트링 타이(String Tie)와 보우 타이 (Bow Tie), 포 인 핸드 타이 (Four in Hand Tie), 스카프를 맨 듯한 아스코트 타이(Ascot Tie)등 다양한 크라바트(Cravat)와 예복용으로 높은 크라운의 실크 햇(Silk Hat)을 착용하였고 그 외 더비(Derby)모자, 펠트(Felt) 모자, 코사크 캣(Cosack Cat) 등이 착용되었다.

2) 여성복

| <b>&lt;표 2&gt; 여성복의 의상분석</b>                                                       |                   |                 |                                            |
|------------------------------------------------------------------------------------|-------------------|-----------------|--------------------------------------------|
| 항목<br>그림                                                                           | 종 류               | 색 상             | 특 징                                        |
|    | 버슬 스타일의 애프터 눈 드레스 | 라이트 블루          | 스탠딩 칼라와 바디스(Bodice)를 촘촘한 단추와 자수로 장식        |
|   |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드레스    | 라이트 블루+ 흰색      | 스퀘어 네크라인의 러플 장식과 퍼프 슬리브                    |
|  |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       | 라이트 블루          |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힙 부분을 90도 각도로 강조             |
|  |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       | 블루 그레이          | 스탠딩칼라와 라펠을 자수로 장식, 퍼프 슬리브                  |
|  |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드레스    | 붉은색             | 앞, 뒤 V 네크라인을 러플로 장식하고 힙 부분을 풍성하게 러플로 강조    |
|  | 버슬 스타일의 웨딩드레스     | 다크 그레이          | 스탠딩 칼라와 퍼프 슬리브, 토크(toque) 형태의 모자와 veil     |
|  |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       |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 스탠딩 칼라에 러플장식, 퍼프 슬리브, 에이프런 (apron) 형태의 스커트 |

&lt;표 2&gt; 계속

| 항목<br>그림                                                                         | 종 류            | 색 상     | 특 징                            |
|----------------------------------------------------------------------------------|----------------|---------|--------------------------------|
|  |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드레스 | 흰 색     | 바디스를 꽃과 자수로 장식, 행잉 슬리브         |
|  | 버슬 스타일의 야회복드레스 | 페일 블루   | 행잉 슬리브, 뒷 버슬을 90도로 과장되게 러플로 장식 |
|  | 튜닉 스타일의 웨딩드레스  | 흰색 +황금색 | 두 겹의 과장된 러플 칼라,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복식형태는 버슬 스타일 (Bustle Style)과 버슬에서 아워글라스 스타일(Hourglass Style)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1890년대 후반의 과도기적 복식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주인공 미나와 루시의 의상은 버슬이 약화된 1880년대 이후의 부드러운 버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려한 브로케이드(Brocade)와 레이스, 러플 등이 사용되었다.

‘1891년도의 유행은 과도기적 성격을 띠었다. 커다란 소매가 달린 바디스들은 1880년대의 주름 효과를 그대로 이용한 스커트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나타냈다.’<sup>26)</sup>라고 블랑쉬 페인(Blanche Payne)이 언급한 것처럼 영화 속의 미나와 루시가 착용하고 있는 드레스는 종종 소매가 크게 부풀려진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Leg of Mutton Sleeve)의 형태를 띠고 있어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의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 1890-1900)을 보여주고 있으나, 스커트는 여전히 버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세기말의 과도기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엿보인다.

#### IV. 결 론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19세기말의 복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드라큐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19세기말로서, 유럽 사회의 격동적인 세기말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귀족과 신진계급인 중, 상류층을 위주로 한 복식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26) 블랑쉬 페인 (1988) ‘History of Costume-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서울: 까치 글방 P609

19세기말은 산업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표현된 버슬 스타일에서 이에 반발하는 자연주의적 예술양식인 아르누보 스타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시대적 복식의 남성복은 시대적 고증에 입각하여 사실적으로 재현되었다.

남성복의 기본적인 복식형태는 상의와 조끼, 바지로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프록코트(Frock Coat)와 조끼(gilet), 스탠딩 칼라의 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다.

극의 흐름에 따라 영화의 시각적, 극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두꺼운 털 코트와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등을 착용하여 시간적 이동을 표현하였고, 또한 영화 후반부에 19세기말의 루마니아 민속 복의 특징적인 요소를 표현함으로써 영화의 공간적인 이동을 암시하고 있다.

여성복은 남성복에 비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버슬 스타일 (Bustle Style)에서 보여주는 곡선미의 강조와 화려한 브로케이드(Brocade)와 러플, 레이스, 꽃 등의 다양한 장식을 나타내주고 있다.

버슬이 약화된 말기의 버슬 스타일(Bustle Style)과 버슬 과 아워글라스 스타일(Hourglass Style)이 혼합된 복식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의 아워글라스 실루엣의 특징으로써 소매를 크게 부풀려 강조하고 있으나, 스커트는 여전히 버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 아워글라스 스타일 (Hourglass Style)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혼합된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시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복식형태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디자인 의도가 내재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영화 <드라큐라>에 나타난 19세기말의 복식형태는 시대적 고증을 바탕으로 하되 디자이너의 감각을 살린 창의적인 복식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영화예술에 있어서 의상이 갖는 시대적 표현성과 더불어 영화적 효과를 상승시켜 주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Fetishism)’, 서울: 경춘사

정흥숙 (1989) ‘근대 복식문화사: 1800-1930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정흥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Blanche Payne (1988)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History of Costume -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서울: 까치 글방

David Bond (1992)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Martin Battersby (1969) ‘Art Nouveau Style’, London: Hamlyn Publishing Group

Max von Boehm (2000) 천미수 역 ‘패션의 역사: 18세기 로코코 시대부터 1914년까지’, 서울: 한길아트

- 김미진 (1999)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 버슬 스타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 (1995)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 유행복식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 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류기주, 김민자 (1992)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한국의류학회지 제 16권 제 4호
- 손미희, 임영자 (1995) “1990년대 의상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 장순찬 (1985) “Art Nouveau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 Study on the Last 19C Costume Expressed in <Dracula>

- Focused on <Bram Stoker's Dracula> Directed by Francis Ford Coppola -

Bucheon college, Seoul-Information polytechnic college, Yong-In Songdam college. **Eun-Soon Park**

The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Jae-Jung Lee**

Costume displayed in a movie suggests personalities, internal psychology, values and attitudes of the character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of heightening the visual effect in the aesthetic aspect, as a very significant component to determine theme, plot and image of the movie.

The study focused on the last 19C costume expressed in <Dracula>, analyze the costume which was represented realistically based on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then study on the historical costume expressed in the movie with visual effect.

To sum up, the features of costumes in the movie, <Bram Stocker's Dracula> are as follows;

For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of costumes in <Bram Stocker's Dracula>, it reflected agitated fin-de-siecle social conditions of Europe in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men's costumes was represented in the realistic historical aspect of costume, while the women's dress showed typical Bustle Style proved by historical investigation in the end of the 19C and combined silhouettes of Bustle and Hourglass Style interpreted as creative designs of the designers, contributed to not only enhancement of aesthetic value but also accomplishment of the movie by showing costume.

key word : The last 19C, Bustle Style, Hourglass Style